<동그라미 채우기> 참고용 대본

**[다정, 진수 역 지원자용 대본]**

**S#1 겨울 저녁, 다정의 책방**

적막과 책 냄새가 감도는 ‘다정’의 책방. 책들도 곧 잠에 들 것 같은 저녁이다. 다정은 계산대 옆 구석에 자기계발서가 담긴 종이박스를 턱 내려놓고는 손을 탁탁 턴다. 허리를 펴고 책방을 무심히 둘러보는데, 아까부터 책장 사이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어슬렁거리는 한 남자가 눈에 띈다. 다정은 그를 발견하곤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중략)

해맑은 표정의 진수. 커피를 사들고 계산대의 다정 앞에 서있다.

다정: (퉁명스럽게) 일 없어요?

진수: 일이야 뭐, 있다가도 없는 거죠. 여기 오면 없는 거예요.

다정: 그럼 다른 데 가서 노세요 책도 별로 안 읽으면서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진수: (장난스럽게) 네? 무슨 소리세요 다정 씨. 저 완전 책돌인데. 그때 그 시집도 벌써 다 읽었다구요.

다정: (자기계발서를 진열하며) 하긴 최근에 시집 사 간 사람 진수 씨밖에 없긴 했어요. 맨날 학습지만 다 나가지.

진수: (웃으며) 요즘 사람들 참 낭만이 없어요. 그쵸.

다정: 요즘 시대에 낭만은 무슨 낭만이에요. 먹고 살기만 하면 그걸로 됐지.

진수: 음……. 제가 보기엔 다정 씨가 낭만 그 자첸데요.

다정: (어이없다는 듯 살짝 창피해하며)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얼른 가요.

진수: (옅게 웃으며) 그래도 커피는 식기 전에 드세요.

다정: 커피 자꾸 사오지 말…….

진수: (다정의 말을 끊으며) 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볼게요! (해맑은 얼굴로 문 옆에서 손을 흔든다)

다정은 진수가 두고 간 커피를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쉰다.

다정: (혼잣말로) 하여튼 이해가 안 가……. 낭만 찾아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다 나는. (한숨 쉬며)

**[이서 역 지원자용 대본]**

**S#2 겨울 밤, 다정의 자취방**

다정과 친구 ‘이서’는 다정의 자취방에서 맥주 한 캔을 하며 수다를 떠는 중이다.

이서: (놀리듯 웃으며) 야 그 분이 너 많이 좋아하네~

다정: (살짝 화내며) 그니까 왜! 왜 좋아하냐고 도대체. 그리고 나이도 우리 또랜데, 수상할 정도로 해맑다니까?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매일 만나러 오냐고. 자기가 무슨 고딩이야? 그런 건 첫사랑 때나 하는 거지.

이서: (흐뭇한 듯 씩 웃으며) 아유~ 좋을 때다~

다정: (발끈하며) 뭘 좋을 때야. 남자친구도 있으신 분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됐고 네 얘기나 좀 해봐.

초인종이 울린다.

이서: 야, 치킨 왔다. 먹으면서 말해줄게.

이서는 배달 음식을 받으려 몸을 일으킨다. (중략)

다정: (흥미롭다는 듯) 그래서, 네가 먼저 좋아한 거야?

이서: (상기된 표정으로) 응. 얼굴도 성격도 딱 좋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다정: (장난스럽게) 오~ 네가 인정할 정도면 진짜 괜찮은가 본데. 사진 없어 사진?

이서: 기다려봐. (승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가며) 어때? 잘생겼지?

다정: 음~ 괜찮네. 이름이 박승우야?

이서: 응! 이름도 귀엽지?

다정: 그만해라. (이서 입에 치킨을 밀어넣으며)

**[승우 역 지원자용 대본]**

**S#3 겨울 낮, 카페**

(다정이 친구 이서의 연인 승우를 찾아가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다.)

느긋한 주말 오후, 어느 카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다정이 별안간 표정이 밝아지며 손을 흔든다. 승우가 머쓱해하며 다정에게 꾸벅, 인사한다. (중략)

다정: 언제부터 이서가 그런다는 걸 아셨어요?

승우: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습관 같은 건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사귄 지 두 달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좀 편해져서 그런지 뭘 자꾸 하나씩 입에 넣더라고요. 우린 보통 안 먹는 것들을요.

다정: 먹지 말라고 얘기해보셨어요?

승우: 제가요? (어처구니 없다는 양) 아니요.

다정: 왜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이, 먹어도 꼭 그런 걸 먹냐고요.

승우: 글쎄요.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거였으면 진작에 안 했겠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전 쓸데없는 거 좋아해요. 제가 하는 일도 그래요. 얼마나 쓸데없어요? 사진이라는 게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돈도 잘 안 돼요. 근데도 어느샌가 보면 셔터에 손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찍는 거예요. 쓸데가 있든 없든.

**[다정 어머니 역 지원자용 대본]**

**S#4 겨울 낮, 다정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다정의 어머니가 다정과 진수 앞에서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다정 모: (독백) 정릉천 가봤어요? 겨울에는 물도 얼마 없고 바람만 쌩쌩 부는, 별 볼일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는 매일같이 그 별 볼일 없는 정릉천에 찾아갔어요. 그것도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

오리를 보고 있는 여자. 하지만 그녀가 정말 보고 있었던 것은 다섯 걸음 정도 떨어져서 카메라에 오리를 담고 있는 남자였다.

여자는 오리를 보던 시선을 남자에게로 돌리고, 둘은 눈이 마주칠 뻔한다. 여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수줍어한다.

다정 모: (독백)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좋았나봐요. 매일같이 손발이 얼어붙는지도 모르고 강가에 앉아서 오리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어요.

**[교수 역 지원자용 대본]**

**S#5 겨울 낮, 상담실**

다정이 상담실의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온다. 교수의 책상에 놓인 머그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다정: 안녕하세요. 진수 씨 소개로 왔어요.

교수: 편하게 앉으세요.

다정은 자리에 앉아 상담실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교수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한다.

다정: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먹어서요.

교수: 친구 분의 증상은 흔히들 이식증이라고 부르는 섭식장애입니다. 머리카락, 손톱 같은 신체 부위에서부터 흙이나 금속 조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해 건강 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정: 그런데 보통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 아닌가요? 다 큰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교수: 생물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다정 양은 왜 친구 분이 그 행동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나요?

다정: 그야… 어른스럽지 못하잖아요.

교수: 글쎄요. 어른스러움이 모든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자,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후략)